

문화소의 시골동네에 ‘복합문화공간’ 문 연다

나주 남평에 ‘복합문화공간 남평507’ 개관 주목
정명숙 작가, 옛 남평북초 새 단장 예술·휴식 병행
갤러리 등 공간 구비...개관·상설전 19일 개막 행사

문화로부터 소외된 시골동네. 폐교 후 방치됐던 초등학교가 새롭게 단장돼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설치와 드로잉, 종이 오리기 등을 활용한 혼합매체 작업을 통해 일상의 감각, 시간의 축적, 그리고 삶의 기억을 시각적으로 기록해온 정명숙 작가가 나주 남평에 예술 씨앗을 심겠다는 포부로 ‘복합문화공간 남평507’을 마련. 이달 중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남평507’은 옛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머물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283번지(광촌리) 소재 옛 남평북초등학교가 1년여의 변화를 거쳐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면서 이 일대 문화향유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남평507은 예술의 향기와 자연의 위로가 머무는 곳을 지향하는 한편, 옛 교정의 추억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모두에게 ‘열린 문화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동시에 상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작가는 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솔직하게 자신이 성공한 화가 측에 들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던 차에 캠핑장과 카페 운영, 학교 교사 등 다양한 직업경험이 있는 만큼 이를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게 됐다. 그러다가 나주시에서 공모사업이 제

안되자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7명의 지원자와 경쟁 끝에 옛 남평북초등학교를 향후 10여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당사자로 선정된 것이 복합문화공간 시초가 됐다.
이곳은 부지 7100㎡, 건평 797㎡ 규모에 건물은 4층으로 구성됐으며, 별도 건물 한 동에 갤러리가 들어섰다. 갤러리는 예술과 일상을 잇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카페와 세미나실, 체험 학습공간, 주민쉼터, 운동장 등으로 구성됐다. 카페와 세미나실은 소통과 사색이 있는 라운지를 표방하며, 예술을 통한 마음의 쉼과 배움을 위한 아트 앤 힐링(Art&Healing)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갤러리 명칭은 남평갤러리로 정했으며, 카페는 507플러스로 정했다. 507플러스의 의미는 폴라리스(북극성 이름)가 문득 생 각나 ‘하나의 좌표가 되라’는 점에서 남평의 좌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갤러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나주시 주관으로 개막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개관기념전시와 상설전이 열린다. 개관기념 초대전에는 김해성 류재용 박구환 조근호 한희원 작가 등 중견 5명의 작품이 선보이며, 남평507 상설전에는 정 작가와 황정후 작가 작품이 출품된다. 전시는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개관 기념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윤민화 씨의 기획으로 15인 어반스케치 현장 드로



잉과 소리꾼 임재은씨의 환형 판소리가 펼쳐지고, 이날 방문객들을 위해 다과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외에 운동장은 불멍 카페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감성마루를 설치, 방문객들이 머무는 동안 문화적 마인드도 얻고, 힐링도 하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남평507을 알리고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507의 뒷 숫자인 7에서 착안, 아픔을 잡아 7km를 뛰거나 걸으면 사람들에게는 커피쿠폰(당일미사용)을 상시 증정할 계획이다.
정명숙 작가는 개관 전 인터뷰를 통해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복잡한 생각을 살아온 만큼 다양한 삶의 경험을 쌓아왔기에 노하우들을 투영해내 공간들을 꾸몄다. 점점 완전체가 돼 가는 듯한 공

간들을 보면서 삶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경험한 다양한 것들이 이곳에서 쓰일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주민들은 물론이고 방문객 및 예술가들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남평 일대에서 문화예술을 전파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을 위해 문화 안팎의 휴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복합문화공간 남평507’ 대표를 맡게 될 정명숙 작가는 조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석사,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학교법인 흥복학원 이사와 조선대 미술대학 겸임교수, 광주교육대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국제사이버대학교 식물치유클리닉학과 교수와 광주 남구 민주평통자치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283번지(광촌리) 소재 옛 남평북초등학교가 1년여의 변화를 거쳐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중국 소수민족 대표 문학상 수상작가 광주서 출간

중국 소수민족문학의 가장 권위있는 상을 수상한 40대 작가의 작품집이 이 지역을 연고로 한 출판사에 나와 주목된다.
중국 이족 출신 여성 작가 아웨이무이뤄의 ‘준마상 산문 부문 수상 작품집인 ‘처마에 걸린 달’이 그것으로, 광주를 연고로 한 문학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저자인 아웨이무이뤄는 이 작품집을 통해 일약 중국 중견작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 작품집은 극사실적인 묘사의 밀도 위에 상징과 은유를 얹어, 한 편의 산문을 읽는 동시에 성장소설 혹은 사소설을 읽는 듯한 긴장과 몰입을 만드는 가운데 에세이를 중심으로 장르적 성격이 혼재된 32편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작가의 실제 체험에서 비롯된 생생한 경험적 현실이 담겨 있다. 극사실적인 묘사의 밀도 위에 상징과 은유를 얹어, 한 편의 산문을 읽는 동시에 성장소설 혹은 사소설을 읽는 듯한 긴장과 몰입을 만든다.
표제작 ‘처마에 걸린 달’은 유년기의 기억을 향토적 서정과 상징으로 풀어낸 기억의 서사로, “머리카락-할머니, 눈(眼)-큰어머니, 코-셋째 숙모, 입-진 씨네 할머니, 귀-큰아버지, 허리-비투네 어머니, 어깨-어머니” 등 신체적 상징을 나타내는 일곱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자의식이 강한 소녀를 둘러싼 유년기의 기억과

이족 출신 아웨이무이뤄의 ‘준마상’ 산문 부문 문학출서 ‘처마에 걸린 달’ 펴내...총 32편 수록
사람들을 불러낸다.
각 인물의 신체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상징으로 해 개인적인 신체적 결함을 비롯 생활의 끈기, 지참금·도피촌·남치촌 등 이족 결혼 풍습,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비롯한 생활사의 풍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소녀의 자의식과 성장의 내력은 단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정체성의 원형으로서 공동체 삶의 구조로 확장된다. 뒤에 이어지는 ‘낙엽’은 최초의 마을 이주자인 넷째 삼촌의 가계를 통해 회고하는 ‘떠도는 이족들’의 현재 이자 자화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척박한 자연과 산골 인물들의 일대기와 떠도는 이족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다.
‘가뭇된 땅’과 ‘라이더’에는 산골 마을에서 생을 이어 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작가의 고향으로 유추되는 공간 중에서 마오쩌둥은 가장 구체적인 지명으로, ‘처마에 걸린 달’과 같은 고산지대 생존 환경에서의 노동과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자연 환경에서 오는 고통과 여기에서 비롯된 산골 마을의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여기다 ‘보부상 삼인’, ‘이유원’, ‘떠도는 이족들’, ‘유목민’은 작가가 거처온 삶의 역정을 따라 노점상-비숙련(보조공)-숙련공의 과정을 현실의 질감으로 기록한다. 아웨이무이뤄는 16세 이후 보부상이나 농민공으로 10여 년을 떠돌다가 글



을 쓰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불시에 찾아든 고향 친구 즈가와 신혼인 그의 아내 이뉴의 이야기에서 작가는 교육과 언어의 장벽, 문식성(literacy)의 획득 여부가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가른다는 사실을 전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김대원 대표작 ‘도명 행정복합센터’에 기증 광주 수하갤러리, 센터 신축 이전 축하 수작 2점 ‘유희적 상기’·‘태동’...‘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수하갤러리(대표 장하경 광주대 명예교수)는 동명동 행정복합센터의 성공적인 신축 이전 및 개관을 축하하며, 남도 회화의 거장 지암(芝庵) 김대원 작가(조선대 명예교수·사진)의 대표작 2점을 기증한다. 기증은 지난 5일 오후 3시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개관식에 맞춰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장 대표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행정 거점이 될 신축 센터가 주민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중히 소장해 온 지암 김대원 화백의 작품들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증 작품은 ‘유희적 상기’와 ‘태동’이다. 먼저 ‘유희적 상기’(2002)는 전통적인 필획의 힘과 현대적인 조형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100호 대형 대작이다.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의 전시작이자 공식 도록 수록 수작이다.



이러 ‘태동’(2006)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찰나의 역동성을 포착해낸 작품으로, 지암 특유의 감각적인 화풍이 돋보인다.
장하경 대표는 이번 기증에 대해 “동명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행정복합센터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 다”며 “지암 김대원 작가의 예술적 성취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소통과 평화로운 휴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암 김대원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한 남도 회단의 원로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국립국악원, 한국전력, KT 등 국내외의 유수의 기관에 소장돼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야외서 소규모공연 할 지역 단체 찾아요”

9일부터 이메일 접수...16건 총 3500만원 지원

광주문화재단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신곁에’에 출연할 공연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시민 생활권 내에서 펼쳐지는 맞춤형 소규모 야외 공연 사업으로, 지난해 첫 운영 이후 올해 2년

차를 맞았다. 공연은 흑사기·흑한기를 제외한 4~5월(상반기)과 10~11월(하반기)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동구 문화센터와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물빛근린공원, 북구 양산호수공원, 광산구 수완호수공원으로 광주 5개 구별 근린공원 공

연장에서 진행된다. 첫째·셋째 주 토요일은 동구·남구·광산구, 둘째·넷째 주 토요일은 서구·북구에서 공연이 열린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소재지를 둔 야외 공연이 가능한 예술단체(팀)이다. 공연은 50분 내외 야외 공연으로 구성해야 하며, 공연진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공연 분야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전통예술, 클래식, 성악, 무용, 댄스, 그 외 거리예술 또는 융·복합퍼포먼스 등이다. 다만, 야외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한 소구

모 공연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원 규모는 출연료 220만원씩 총 16건으로, 전체 예산은 3520만원이다. 기존 음향시설 지원과 웹포스터 제작 지원에 더해 대기실 텐트 및 생수 지원이 추가된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공고문과 신청서는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